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1년 11월 23일 (화)

News

가계대출 빗장 풀리나···농협 이어 하나은행도 내일 재개 — 서울경제

하나은행, 10월부터 판매 중단한 가계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 재개…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른 것

모든 신용대출 상품과 부동산 구입자금대출이 대상… 중단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계획했으나 금융 당국 방침과 NH농협은행의 재개 결정 영향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

카카오뱅크, 전직원에 성과급·스톡옵션 지급 — 조선비즈

카카오뱅크, 내년 직원 임금 일괄 인상 및 별도의 성과급과 스톡옵션 지급 전망… 업계 안팎에선 파격적인 연봉 인상안이라는 평가

노조 설립 후 임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압박 증가, 인재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 전직원 최소 1,000만원 이상 일괄 인상, 연봉 30% 수준 스톡옵션 제공, 연봉 20% 수준 성과급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23년 만에 완전민영화 길에 들어서… 신규 주주들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업다각화 꾀할 것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5), 두나무(1%), 우리사주조합(1%)로 예보가 내놓은 지분 나눠갖기로… 유진PE는 사외이사 1명 추천권도 부여

P2P 누적 대출액 2兆 돌파…'부동산 쏠림' 리스크 여전 — 데일리안

온라인투자금융업, P2P 누적잔액이 사상 처음 2조원 돌파…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보험,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대거유입된 것으로 보여…

21일 기준 31개 온투업자의 누적대출 잔액은 2조 110억 8,320만원… 부동산 대출 비중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자동차에 공들이는 보험사들… 신차 교환보상보험까지 나왔다 — 머니S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고객 확보에 주력

현대해상, 신차특화고보장상품 판매 강화에 이어 하나손해보험은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판매 강화를 위한 온라인 및 전용앱 시스템 구축

대형 생보사, 변액보증손실에 3분기 실적 '흔들' — 연합인포맥스

변액보증손실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적자 기록… 한화생명은 보험이익으로 변액보증손실을 상쇄해 적자를 면한 것으로 보여…

원화 국고 5년 금리 올해 6월 말 1.739%에서 9월 말 1.929%로 19bp 상승… 코스피지수는 3068.82포인트로 227.86포인트 하락

빚투 덕에...증권사 곳간 넘친다 — 아시아경제

올해 증권사들 매분기 최대치 기록을 새로 쓰는 역대급 빚투 이자수익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수익 올릴 것으로 보여…

3분기까지의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총 1조 3,432억원으로 집계

몸집 커진 VC… 금융당국, 증권사 신기술투자 규제 '만지작' — 머니S

VC 시장에 대규모 자금 몰리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잇따라 뛰어들어…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 예의주시

금융위, 증권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의 신기사겸영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